



‘마린보이’ 박태환이 26일 광주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 남자일반 자유형 200m 결승전에 나와 스타트를 끊고 있다. /연합뉴스

## 200m 세계 7위 기록

**박태환 동아수영대회 2관왕**  
**여자점영 50m 한국신**  
**안세현-박예린-안세현**  
**하루 3차례 바뀐**

‘도핑 파문’ 이후 18개월 만의 복귀전에 나선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이 주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 올 시즌 세계랭킹 7위의 기록을 내고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26일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 이틀째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6초31의 기록을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탈 때 작성한 개인 최고 기록 1분44초8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 시즌 세계랭킹 7위의 기록으로 레이스를 마쳐 견제를 과시했다.

올 시즌 남자 자유형 200m 세계랭킹 1위 기록은 지난 17일 영국선수권대회에서 제임스 가이(영국)가 세운 1분45초19다. 이번 대회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다. 박태환은 전날 우승한 자유형 1500m에 이어 두 번째 출전 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도 리우 올림픽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국제수영연맹(FINA) A기준기록(1분47초97)을 무난히 통과했다.

2014년 11월 끝난 전국체전 이후 약 18개월 만에 공식 복귀 무대에서 선 박태환은 전날 자유형 1500m에서는 15분10초95의 기록을 내고 1위에 올랐다. 하지만 박태환은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 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는 처지다.

여자 점영 50m에서는 8년 동안 깨지지 않던 한국 기록이 하루에 무려 세 차

**박태환 자유형 200m 기록일지**

2005년 3월 동아대회	1분50초41(1위)
2006년 8월 캐나다 밴퍼시픽선수권	1분47초51(1위)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	1분44초85(1위)
2009년 7월 로마 세계선수권	1분46초53
2010년 8월 미국 밴퍼시픽선수권	1분44초27(2위)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1분44초80(1위)
2011년 6월 산타몰레라 국제그랑프리	1분45초92(2위)
7월 상하이 세계선수권	1분44초92(4위)
2012년 7월 런던올림픽	1분44초93(1위)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1분45초85(1위)
10월 전국체전	1분46초25(2위)
2016년 4월 동아수영대회	1분46초31(1위)

\*한국신기록 \*\*아시아신기록 \*\*\*도핑 징계로 기록 매달 박탈  
아시아 기록: 안양(중국) 1분44초47  
세계 기록: 파울 비더만(독일) 1분42초00

레나 새로 쓰였다.

한국 여자수영의 간판 안세현(21·SK텔레콤)이 먼저 일을 냈다. 안세현은 예선에서 26초62 만에 레이스를 마쳐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2008년 전국체전에서 당시 대전시체육회 소속 류윤지가 세운 종전 한국 기록(26초76)을 무려 8년 만에 갈아치웠다. 하지만 안세현의 한국 기록은 한나절밖에 가지 못했다.

이날 오후 열린 여자 고등부 결승에서 박예린(16·부산체고)이 26초51로 안세현의 기록을 0.11초 줄였다. 그러나 박예린의 한국 기록 보유자 지위는 채 5분도 가지 못했다.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안세현이 26초30으로 다시 한국기록을 세우고 1위를 차지했다.

안세현은 하루에 두 차례나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역경을 펼쳤다. 다만 점영 50m는 올림픽 종목은 아니다. 대신 안세현은 주종목인 점영 100m와 200m에서 올림픽 출전은 물론 리우에서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까지 도전한다. 안세현은 점영 100m 한국 기록(58초19)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기록보다 가을무대”

### KIA 한기주의 각오

KIA 타이거즈 투수 한기주는 요즘 축하 인사를 받느라 바쁘다.

그는 최근 세 번의 등판에서 승, 세이브, 선발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운드를 떠나있던 시간만큼 그의 이름 앞에는 숫자가 수식어로 붙고 있다.

한기주는 지난 12일 SK원정에서 선발 임준혁이 일찍 무너지면서 마운드에 조기 투입됐다. 3회 2사에서 시작된 그의 시즌 두 번째 등판은 6회 2사에서 끝났다. 3이닝 3볼넷 3탈삼진 무실점. 4-6에서 등판한 한기주는 6회초 타자들이 7-6 역전극을 연출해주면서 1462일 만의 승리투수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15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는 7-6으로 앞선 8회초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나왔다. 그는 첫 타자 김재현을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지만 두 개의 땅볼과 도루 실패로 아웃카운트 3개를 채웠다. 한기주는 8회말 타자들이 4점을 뽑아주면서 11-6에서 9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고, 삼자범퇴로 세이브

### 1401일만의 세이브

### 1462일만의 승리투수

### 1688일만의 선발승

### 큰 의미 두지 않아요

### 10승을 바라고 뛰겠다

### 5회까지 책임진단 각오

### 부상없이 풀타임 뛰고파

기록을 쟁겼다. 1401일 만의 세이브였다.

23일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깜짝 등판을 한 한기주는 5회 1사 만루의 위기를 넘기면서 5이닝 7피안타(1피홈런) 4볼넷 3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안벽의 투구는 아니었지만 5이닝을 책임진 그는 화끈한 활력 지원으로 16-10 경기의 승리투수가 될 수 있었다. 이번에는 1688일 만

의 승리투수가 그의 이름이었다.

승리 소감을 물어봐도, 세이브 소감을 물어봐도 “소감이 없다”는 한기주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답답하다.

그에게 승과 세이브는 많은 의미가 있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험겨웠던 지난 시간은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기주에게 알려주었다.

“아직 홀드도 남았고 패전도 남아있다”며 웃은 한기주는 “하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승리투수가 됐다고 하지만 내가 10승을 바라면서 하겠느냐. 주어진 상황에서 내 역할을 해내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아프지 않고 풀 타임을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풀 타임을 목표로 한 한기주는 기록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미련을 버리자 두려움도 함께 놓아졌다.

한기주는 “아픈 곳 없이 몸 상태가 좋다. 아프면 그만두면 된다는 마음으로 올 시즌을 준비했다. 아프다,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았다. 머릿속에서 아픈 것을 그냥 다 지웠다”고 말했다.

그가 내려놓은 또 하나는 스피드다.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파이어 불러었던 그는 더 이상 스피드로 상대를 압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한기주는 “스피드에도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언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맞춰 잡는 피칭으로 유도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료들은 힘든 시간을 이겨낸 한기주를 위로해주듯이 적시 적소에 공격을 펼쳐주며 그와 결을 함께하고 있다. 한기주도 이제는 팀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기주는 “운이 따르는 것 같다. 선발 등판을 하면서 5회 전에는 절대 내려가지 말자는 생각으로 마운드에 올라갔다. 5회 위기 상황에서는 그냥 막자는 생각만했다. 부담감보다는 타자만 잡아내자, 더 이상 점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목표는 확실하다. 풀타임, 가을 야구를 하는 것이다. 다시 포스트 시즌 마운드에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와일드카드 수비쪽에 무게 변형 전술로 공격 극대화”

### 리우올림픽 D-100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

### 내달 안방서 4개국 축구대회

신태용 올림픽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26일 “현재 와일드카드 후보로 5명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감독은 리우 올림픽 D-100일을 맞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3세 이하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와일드카드 선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감독은 와일드카드의 포지션에 대해선 “수비수 쪽에 많은 염두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일단 수비가 강해야 하는데 대표팀 수비수 중 K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이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일드카드 선발시 병역해택 문제를 고려해 미필자 중에서 선수를 뽑을지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선 “동기부여 때문에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도 “군필자를 뽑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을 위해 희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감독으로서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신 감독은 직전 대회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대표팀이 동메달을 획득한데 대한 부담감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하면 지

도자로서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압박을 느꼈지만 ‘남자로서 해보자’라고 생각했다”고 소개한 뒤 “리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비판을 많이 받겠지만 내 운명이다. 잘 준비해서 런던 올림픽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올림픽 준비에 대해선 “같은 조에 소속된 피지와 멕시코, 독일의 영상 자료를 가져왔다”고 소개한 뒤 “100일 남은 기간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이 준비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매경기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잘하면 런던 올림픽에서 거둔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의 전술과 관련해선 “리우에서도 (카타르 예선 때의) 기본 포메이션을 가동하겠지만 변칙 전술을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격을 극대화시키되, 변형 전술을 쓸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 감독은 또 5월말 대표팀 소집 때 사실상 와일드카드로 확정된 손흥민(토트넘)을 부르는 문제에 대해선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도 다음달 스페인과의 평가전에 최정에 멤버를 데려갈 생각이어서 상의한 뒤 원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림픽대표팀은 5월 말 안방에서 ‘4개국 국제 축구대회’를 통해 막판 담금



질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고위관계자는 26일 “대표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5~6월 A매치 기간에 국내에서 ‘4개국 초청 국제 축구대회(가칭)’를 열기로 하고 상대팀을 섭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A매치 기간에 유럽 원정에 나서는 슈틸리케호와 함께 신태용호도 유럽에서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리우 올림픽 본선 조 추첨이 늦게 실시돼 평가전 상대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국내에서 4개국 초청 대회를 열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팀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섭외 중이다. /연합뉴스

### 류현진 불펜 피칭 재개

### 오늘 20~25개 소화할 듯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마운드를 복귀를 위한 재활 투구를 재개한다.

다저스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트루 블루 LA’ 소속 에릭 스티븐 기자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류현진이 27일 불펜 피칭을 재개할 예정이며, 20개에서 25개 정도 던질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5월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올해 2월 중순 불펜 피칭을 시작했다. 2월 말에는 어깨 통증으로 불펜 피칭을 중단하고, 다시 캐치볼 단계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이후 3월 중순에야 다시 불펜 피칭을 소화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손조롭게 어깨를 보호해 이번 달 8일 타자를 세우두고 던지는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했다.

12일에는 두 번째 라이브 피칭을 했고 13일 애리조나 캠프를 떠나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 하지만 류현진은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17일 잡했던 불펜 피칭을 취소했고, 이후 등판 일정도 불투명했다.

류현진이 27일 손조롭게 불펜 피칭을 소화한다면, 두 번째 라이브 피칭을 했던 12일 이후 보름만이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복귀 시점은 아직 전망하기 힘들다. 5월 말에서 6월 초 복귀를 내다봤지만, 허벅지 통증으로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불펜 피칭과 라이브 피칭, 연습 경기까지 모두 무사히 소화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돌아갈 수 있다.

/연합뉴스